

# 충북출신 중국 연변 조선족 언어집단의 경어법 혼합양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고찰\*

박 경 래  
(세명대학교)

## Abstract

Park, Kyeong-rae. 2005. A Sociolinguistic Study on the Mixing of Addressee Honorifics of Korean Immigrants from Chungbuk, Korea in Yeonbyeon, China.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13(1).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features of addressee honorifics by observing sentence endings used by the Jeongam village that consists of major speech group speakers from Chungcheongbuk-do and minor speech group speakers from Hamgyeongbuk-do. Addressee honorifics in the Jeongam dialect are distinct with respect to social status or social conditions such as social positional relationships between speaker and listener, the listener's native region, the occupation of the listener, intimacy between speaker and listener, and so on. The speakers of the Jeongam dialect recognize different levels of addressee honorifics such as 'Yeye, Yaya, Eungeung' and like the Hamgyeongbuk-do dialect it is possible to divide them into sub-levels. It is also observed that imperative and request sentence endings, which are used in the Jeongam dialect are a mixture of the Chungbuk dialect and the Hamgyeongbuk-do dialect. This is understood as an overlapping phenomena of the two dialects due to the fact that Hamgyeongbuk-do dialect speakers outnumber Jeongam speakers where Chungbuk dialect speakers live. This indicates that features of the Chungbuk dialect and the Hamgyeongbuk-do dialect coexist in the Jeongam dialect through borrowing.

**Keywords:** addressee honorifics, sentence endings, speech group, Jeongnam village, Chungbuk dialect, Hamgyeongbuk-do dialect

## I. 서론

사람은 누구나 크건 작건 하나의 사회 범주에 소속되며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은 상호 관련을 맺는다. 그 사회가 어떤 언어를 공유하는 언어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그 언어를 통하여 그 사회 범주에 속하는 다른 사람들과 관련을 맺게 된다. 따라서 언어 공동체에 변화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언어에도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남한은 물론 북한에도 한국어의 하위 단위인 방언이 존재하고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는 중국 연변(延邊) 지역과 일본 및 미국 등지에도 한국어 방언이 존재한다. 남한이나 북한의 방언이 그렇듯이 해외 동포들이 사용하는 모국어도 세월이 흐름에 따라 각기 다른 한국어의 방언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 결과 한국어 사용자들끼리 방언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방해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방언 차이가 지역적인 거리에 의한 것이든 의사소통의 전달 방법이나 어휘의 차이에 의한 것이든 이러한 문제는 의사소통의 장애를 가져오며 이러한 의사소통의 장애는 우리나라의 문화 발전에도 저해 요인이 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언어 공동체가 언어 사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 연변 지역에 거주하는 충청북도 출신 언어집단인 정암촌(亭岩村)에서 관찰되는 경어법 사용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과제번호 2003-002-A00094).

양상이 사회 문화적인 배경과 어떤 상관성을 가지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봄으로써 경어법 사용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언어 집단의 특징과 변화, 사회적인 맥락은 물론이고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인 배경과 지위 등을 고려하여 종결어미의 사용을 중심으로 경어법 사용양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방언학적 연구는 통계조사를 해야 하고 사회적인 변인으로 성별, 세대, 계층, 나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방법론에서 벗어나 언어집단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인 배경을 고려하여 그 집단에서 관찰되는 언어현상을 설명할 수도 있다.<sup>1)</sup> 사회언어학내지 사회방언학적인 연구의 출발은 언어 내적인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언어적 사실을 사회적인 맥락과 관련지어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언어가 사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듯이 자연언어로서의 방언도 늘 사회적인 맥락 속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대에 서로 다른 문화공간에서 살아가는 화자들 각각에서 관찰되는 언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언어 변화의 기제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는 언어사용의 실재를 사회적인 맥락(social context)과 관련지어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어려움이 있다. 경어법을 결정짓는 요인이나 조건 및 그 실현 양상이 워낙 복잡하고 복잡적이어서 경어법이 사용되는 모든 현장 상황에서 갖가지 경어법의 용례를 추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러한 일을 미루어둘 수는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암촌 방언의 상대경어법 가운데 명령법과 의문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정암촌은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 속한다. 한편으로는 연변 조선족 방언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방언, 특히 함경북도 육진 지역과 인접해 있어 그 영향을 받는 곳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조선족들의 도시 이주로 인하여 하루가 다르게 정암촌 언어공동체의 언어적 순수성이 약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연구의 시급성과 중대성이 제기되는 곳이다.

중국 내 조선족 사회에 대한 연구는 조선족들의 언어생활을 비롯하여 사회, 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단편적인 보고가 있기는 하지만 중국 내에서 한국의 특정 지역 방언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나름대로의 분화 양상을 보이는 언어 집단에 대한 본격적이고 면밀한 조사와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현지조사의 어려움이라는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중국조선족 사회의 언어집단에 대한 방언 조사와 연구가 쉽게 시도되지 못한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들만이 가진 사회적인 맥락을 고려함으로써 언어 변화의 방향과 언어분화의 기제를 추출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본고와 같은 연구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 내 조선족 사회의 변화와 궤를 같이하면서 그 고유성과 순수성이 급속히 사라져 가는 현실 속에서 전통 방언자료를 수집 정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 언어 상황에서 나타나는 언어 분화와 융합 양상이 경어법 사용에서는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일차적인 관심이다.

방언 연구는 목적과 이론에 따라 조사 방법이나 조사 항목의 범주 및 자료의 이론화가 달라지는 것이지만 방언 자료의 성격상 전통적으로 수행되어온 것과는 다른 것이 사회 방언학이다. 출신 지역을 같이 하는 언어 집단이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사회 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반세기 이상을 살아오는 동안 한국어의 가장 큰 특

---

1) Labov(1966)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사회언어학적인 연구가 시작된 초기의 논의들이 주로통계적인 방법을 원용하였으나 Gumperz(1971) 등 일련의 논의에서는 통계적인 방법 이용하지 않고도 사회언어학적인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으로 꼽히는 경어법이 어떤 양상을 보이며 얼마만큼의 분화를 어떻게 겪었는지에 대하여 해명해 보려는 것이 이 글의 지향점이다.

이 연구가 충청북도 출신 화자들 집단에 함경도 출신 화자들이 섞이면서 독특한 언어 사용 양상을 보이는 정암촌 방언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인 만큼 연구자가 이 언어 집단에 직접 뛰어들어 대화 참여자로서 또는 관찰자로서 경어법의 사용 양상과 기능 및 의미 범주의 규칙과 차이를 살펴보고 나아가 그러한 규칙과 차이를 보이는 요인을 사회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추적해 보고자 한다.

## II. 정암촌 방언의 성립과 자료조사

### 1. 정암촌 방언의 성립

중국 내의 조선족 사회는 오랜 전통을 가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일제 강점기에 중국 동북삼성(東北三省) 지역으로 집단 이주하면서 형성되었다. 본고의 연구대상 지역인 정암촌(亭岩村)은 북한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중국 길림성 도문시 양수진(中國吉林省 圖們市 凉水鎮)에 위치한다. 정암촌은 처음에는 흑룡강성(黑龍江省 旺清縣)에 속했다가 다시 길림성 훈춘시(暎春市)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고 현재는 길림성 도문시에 편입되어 있다. 정암촌은 1938년과 1940년에 충청북도에서 이주한 충청북도 출신 이주민들이 황무지를 개척하여 이룩한 80호의 집단 부락으로 출발하였다. 초기에 충청북도 출신 이주민들만으로 구성되었던 정암촌 언어집단에 1960년대 이후 소수의 함경북도 출신 이주민이 유입되었다. 이에 따라 정암촌 방언은 함경도 방언 출신들로 구성된 대부분의 인접 언어집단과는 달리 한편으로는 충청북도 방언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인접 방언인 연변 조선족의 함경도 방언에 영향을 받고 있어 두 방언의 언어 형식이 혼재 내지 융합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도 정암촌 방언이 방언점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현재의 이 마을 주민들은 충북에서 이주한 30여 명의 조선족 1세대가 생존해 있고 충북출신 조선족 1세대가 타계한 조선족 2세, 그리고 1960년대 이후 이 마을에 이주한 함경북도 출신 조선족 일부로 구성되어 있다. 정암촌 주민의 대다수가 충북출신이어서 이 언어집단에서는 기본적으로 충청북도 방언이 기층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함경북도 출신들의 말이 섞이면서 혼효형과 변이형들이 동시에 관찰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 언어 집단 또한 정암촌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좀더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에 의해 규명되어야 할 것이지만 대체로 충청북도 방언을 저층으로 하여 그 위에 함경도 방언이 겹쳐진 것으로 여겨진다.

### 2. 자료조사 과정과 제보자

중국 내의 충청북도 마을인 정암촌의 존재가 알려지게 된 계기는 이 지역이 중국 길림성 연길시 소재의 연변대학교 조문계(우리나라의 국어국문학과) 학생들의 언어 실습지로 활용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sup>2)</sup> 그리고 정암촌이 한국에 알려진 것은 한국과 중국간의 국교가

2) 정암촌 주민 신명옥(여, 68세)에 의하면 1970년대에는 연변대학교 조문계 학생들이 매 방학 때마다 약 한달 간씩 홈스테이 형식으로 정암촌에 머물면서 언어실습을 했다고 한다. 연변대학교 총장 김병민 교수의 설명에 의하면 연변대학교에

수립되기 전부터 중국의 연변대학교와 충북대학교가 비공식적인 학술교류를 하면서였고, 이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1993년 충북대학교 답사팀이 방문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지속적인 답사를 통하여 ‘청주아리랑’을 발굴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2001년 가을에는 충청북도와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등의 도움으로 정암촌에 거주하는 충북출신 1세대들의 한국 방문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지역의 방언에 대한 조사는 1999년 필자에 의한 예비 조사가 처음이었다. 이후 본조사와 보충조사 등 모두 네 차례의 현지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이 네 차례의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제1차 현지 조사는 1999년 7월 12일부터 27일까지 이루어졌고, 제2차 현지조사는 2001년 2월 5일부터 20일까지 이루어졌다. 그리고 제3차 현지조사는 2002년 1월 3일부터 20일까지 이루어졌고 제4차 현지조사는 2004년 2월 21일부터 26일까지 이루어졌는데 네 차례 모두 정암촌에 머물면서 방언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 방법으로는 면접 조사, 참여 관찰 조사, 그리고 담화의 녹음 등이 이용되었다.

제보자는 이용안(남, 75), 신명옥(여, 68), 김분적(여, 68), 이이재(남, 40), 이덕재(남, 44), 최봉철(남, 41), 김동길(남, 37) 등이다. 이용안과 신명옥은 부부로서 충청북도 출신이고 이이재와 이덕재는 이들 부부의 아들이다. 최봉철은 이이재의 친구로 충청북도 출신 화자의 아들로 정암촌 태생이다. 김분적은 함북 길주 출신의 부모를 둔 길림성 훈춘 태생이며 1960년대 초에 정암촌으로 이주했다. 김동길은 함경도 출신 부모를 둔 정암촌 태생이다.

### Ⅲ. 정암촌 방언의 상대경어법

이 장에서는 정암촌 방언의 언어적 배경이 그들의 출신지나 이주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언어분화의 원인을 정암촌 언어집단이 다른 언어 집단과 겪는 사회적 갈등과 언어적 갈등을 경어법 사용에서 어떻게 조정하고 타협하며 해소하는가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언어 현상에 대한 연구가 문화와 사회에 대한 탐구로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 1. 정암촌 방언의 상대경어법과 기본 등급

상대경어법은 ‘화자가 주로 문장 종결어미를 통하여 대화 상대를 지위와 친밀도 등에 따라 등급을 매겨 언어적으로 달리 표현하는’ 경어법의 하위 범주 가운데 하나다. 최현배(1937/1961)에서는 ‘말 듣는 사람을 높이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허웅(1961)에서는 ‘상대존대’로 규정하였으며, 이익섭(1974)에서는 ‘상대경어법’으로 규정하였다. 성기철(1985, 1990)에서는 ‘경어법’을 ‘대우법’으로 부르고 ‘공손법’ 또는 ‘상대경어법’을 ‘청자대우법’으로 명명하여 사용하고 있다. 화자의 대화 상대는 말을 듣는 청자이므로 ‘상대경어법’을 ‘청자경어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학교문법에서는 ‘상대높임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본고에서는 ‘상대경어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화자가 청자를 대우하는 상대경어법의 표현 방식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청자에 대한 호칭과 이와 호응하는 종결형에 의해서 표현되는 것이고, 둘째는 청자에 대한 호칭 없이 문장의 종결형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며, 셋째는 문장의 기능을 가진 구에 의해서 표현되는 것이다. 청자에 대한 호칭은 2인칭 대명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청자의 이름이나 청자

---

서 이곳을 언어실습지로 선정한 것은 이곳 말이 표준어에 가깝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를 지칭하는 명사를 직접 쓰기도 한다. 호칭 없이 문장 종결형을 통해서 표현되는 상대경어법은 호칭어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구에 의해 표현되는 상대경어법은 호칭어뿐만 아니라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문장 성분을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대경어법의 표현 방식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청자에 대한 호칭 없이 문장 종결형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은 화자가 청자를 대하는 태도나 청자의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몇 개의 경어 등급으로 나뉜다. 상대경어법의 등분은 주로 문장의 종결어미에 의해 표현되는데 이는 정암촌 방언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상대경어법은 현장에 있는 인물을 경어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화자와 청자간의 사회적 지위 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화자가 청자를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다. 상대경어법의 사용은 청자에 대한 호칭체계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져 청자를 어떻게 호칭하느냐에 따라 동일 인물이라도 경어 등급이 달리 나타나기도 한다.<sup>3)</sup>

정암촌 방언의 상대경어법은 크게 화자가 청자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즉 손윗사람인가 손아랫사람인가, 아니면 화자와 동급(친구)인가로 보는가에 따라 등급이 갈린다.<sup>4)</sup> 그런데 정암촌 방언의 상대경어법 체계를 한국어 방언의 그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사용규칙 면에서도 상당한 특이성이 관찰된다. 이는 정암촌 주민에 함경도 출신 화자가 일부 섞여 있는 것과 정암촌 화자들이 함경도 방언에 기반을 둔 길림성 조선족 방언과의 접촉으로 그 방언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암촌방언 화자들은 청자를 대하는 언어적 방법으로 ‘예예한다’, ‘야야한다(또는 양양한다)’, ‘응응한다(또는 야자한다)’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사용 맥락이나 종결형에 따라 좀더 정밀하게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5)</sup> 이에 따라 정암촌 화자들이 상대경어법 등급 명칭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예예한다, 야야한다, 응응한다’는 각각 ‘예예체, 야야체, 응응체’로 규정한다. 이것을 한국어의 상대경어법과 비교하면 ‘예예체’는 ‘합쇼체’와 ‘해요체’의 일부를 아우르는 정도의 등급에 가깝고, ‘야야체’는 ‘해요체’의 일부와 ‘하오체’ 및 ‘반말체’를 아우르는 정도의 등급에 가까우며, ‘응응체’는 ‘반말체’와 ‘해라체’를 아우르는 정도의 등급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경어 등급에 사용되는 종결어미는 좀더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띤다.

‘예예, 야야, 응응’은 각각 길림성 조선족 방언에서 상대방의 질문에 대한 반응이나 상대방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형식에 사용되는 ‘예, 야, 응’에 기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의 (예 1)에서 보듯이 ‘응’은 손아랫사람이 부르거나 묻는 말에 손윗사람이 대답하는 형식이고, ‘야’는 동급인 사람끼리 부르거나 묻는 말에 대답하는 형식이며, ‘예’는 손윗사람이 부르거나 묻는 말에 손아랫사람이 대답하는 형식이다. 그런데 이 ‘응, 야, 예’가 묻는 말에 대답하는 기능도 있지만 청자의 지위에 따라 화자가 군더더기 말로 첨가하는 간투사의 기능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에는 아래 (예 1 ㄱ)과 (예 1 ㄴ)의 부정표현에서 알 수 있다. 단순한 대답형식일 때는 ‘응’이나 ‘야~’로 문장을 마칠 수 있으나 부정적인 응답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응’ 다음에 반드시 부정적인 표현이 와야 한다. 이 때 ‘응, 야~’나 ‘예’는

3) 이 글에서는 기본적으로 중국 조선족들이 사용하는 상대경어법의 등급 체계와 용어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한국어 경어법 체계와 용어를 원용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글에서 ‘길림성 조선족’이라고 하면 ‘함경도 방언에 기반을 두고 중국 길림성에 거주하는 조선족 화자들’ 정도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길림성 조선족 방언’이라고 하면 ‘함경도 방언에 기반을 두고 중국 길림성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이 사용하는 한국어 방언’ 정도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4) 정암촌에서는 ‘손윗사람’을 ‘이상사람’ 또는 ‘지상사람’이라고 하고 ‘손아랫사람’을 ‘지하사람’이라고 하는데 본고에서는 ‘손윗사람’과 ‘손아랫사람’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5) ‘야야한다’의 ‘야야’는 ‘양양’ 또는 비모음의 ‘야~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편의상 ‘야야’로 용어를 통일하고 ‘야자한다’ 또는 ‘응응한다’는 ‘응응한다’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청자의 지위를 고려하여, 즉 경어 등급을 고려한 물음에 대한 반응이라고 이해된다.<sup>6)</sup>

(예 1)

- |            |                 |
|------------|-----------------|
| ㄱ) 밥 먹었음두? | → 응, 아이 먹었으꾸마.  |
| 소 잘 큼두?    | → 응, 소 잘 크다.    |
| ㄴ) 밥 먹었소?  | → 야~, 밥 아이 먹었소. |
| 여기서 거기 머오? | → 야~, 여기서 머오.   |
| ㄷ) 밥 먹었나?  | → 예, 밥 먹었으꾸마.   |
| 연남이 왔니?    | → 예, 왔으꾸마.      |

위의 예 (1 ㄱ)에서 대답 ‘응’과 호응하는 종결어미는 ‘-(으)꾸마’와 ‘-나다’이고 이에 대응하는 의문형어미는 ‘-(으)ㄹ두’인데 이는 손아랫사람이 손윗사람에게 ‘-(으)ㄹ두’로 질문하면 손윗사람이 ‘응’과 종결어미 ‘-(으)꾸마’나 ‘-나다’로 응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ㄴ)은 ‘야~’와 호응하는 종결어미가 ‘-소’와 ‘-오’이고 이에 대응하는 의문형어미 역시 ‘-소’와 ‘-오’라는 점에서 화자와 청자가 대등한 관계임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1 ㄷ)은 ‘예’와 호응하는 종결어미가 ‘-(으)꾸마’이고 이에 대응하는 의문형어미는 ‘-나’와 ‘-니’인데 이는 손윗사람이 손아랫사람에게 ‘-나, -니’로 질문하면 손아랫사람이 ‘-(으)꾸마’로 응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는 ‘-(으)꾸마’가 ‘응’과 ‘예’에 다 호응되는 특이한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길림성 조선족 방언의 일반적인 종결어미 사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다. 즉, 길림성 조선족 방언에서는 ‘-(으)꾸마’가 ‘예’와 호응되는 종결어미인데 정암촌에서는 위의 예 (1)에서와 같이 ‘예’뿐만 아니라 ‘응’에도 호응되기 때문이다. ‘-(으)꾸마’가 ‘응’과 호응하여 의문형 어미 ‘-(으)ㄹ두’에 대응형으로도 쓰이고, ‘예’와 호응하여 의문형 어미 ‘-나, -니’의 대응형으로도 쓰인다는 것은 종결어미 사용의 체계로 볼 때 모순되는 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암촌 방언에서 이렇게 모순되는 용법이 관찰되는 것은 길림성 조선족 방언에 의한 간접의 결과라고 해석된다. 다시 말하면 정암촌 화자들이 길림성 조선족들과의 언어 접촉을 통하여 종결어미의 용법을 불완전하게 받아들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특기할 것은 (1 ㄱ)의 의문형 어미 ‘-(으)ㄹ두’에 대응하는 평서형어미 ‘-(으)꾸마’와 (1 ㄷ)의 의문형 어미 ‘-나, -니’에 대응하는 평서형 어미 ‘-(으)꾸마’의 쓰임이 청자에 따라 어느 정도 제약된다는 사실이다. 즉, 청자가 손윗사람이라도 함경도 출신일 때는 (1 ㄱ)와 같이 ‘-(으)ㄹ두’를 사용하는데 비해 비슷한 정도의 손윗사람이라도 충청북도 출신이면 의문형 어미를 ‘-아/어요?’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비슷한 지위의 청자를 정암촌으로 이주하기 전의 출신지역에 따라 언어적으로 달리 대접한다는 것은 청자의 사회적인 배경이 종결형의 선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가 현지 조사를 위해 정암촌에 머무르는 동안 어느 누구도 필자에게 ‘-(으)ㄹ두’를 사용하여 질문한 경우가 없었지만 필자 또래의 주민에게는 가끔씩 ‘-(으)ㄹ두’를 사용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정암촌 화자들이 청자의 사회적(언어적) 배경을 고려하여 종결어미를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자가 함경도 출신이고 청자가 충청북도 출신일 때도 화자의 출신 배경을 고려하여 응답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예 (1 ㄷ)이 그런 예다. 이런 경우 화자가 충청북도 출신이면 ‘예, 밥 먹었습니다, 예, 왔습니다.’나 ‘예, 밥 먹었어요, 예, 왔어요’로 대답한다. 일반적으로 주류 집단 속에 소수집단이 공존하는 경우는 소수집단이 주류집단의 언어를 따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암촌의 경어법 사용에서는 오히려 강한 결속력을 가진 주류집단의 화자가 소수집단을 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역의

6) ‘응, 야~, 예’에 대한 용법에 대하여는 박경래(2003)을 참조할 것.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주류집단인 정암촌에 이주하여 오랫동안 소수집단으로 함께 살아온 함경도 출신 화자가 주류집단의 청자에게 주류집단이 사용하는 의문형 어미를 사용함으로써 상대와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이로써 유대를 강화하려는 언어사용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된다.<sup>7)</sup>

정암촌에서 사용되는 ‘예예, 야야, 응응’은 길림성 조선족 방언에서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에 따라 말을 하는 중간중간에 말 단계에 따라 군말처럼 덧붙이는 형태소 ‘응’과 ‘야(양)’ 또는 ‘예’의 공기(共起)와도 맥을 같이한다. 이때 청자가 손윗사람이면 ‘예’, 청자가 동급이면 ‘야’, 청자가 손아랫사람이면 ‘응’을 사용한다. 그리고 ‘예예한다, 야야한다, 응응한다’로 대표되는 세 개의 용어도 함경도 방언에 기반을 둔 길림성 조선족 방언 화자들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각각 ‘예예체, 야야체, 응응체’라고 명명할 수 있다.

다음의 예 (2)가 그런 예들이다.

(예 2)

ㄱ) 우리두 **응**, 가마치 아이 먹어(우리도 누룽지 안 먹어).

ㄴ) 여자들이 채칼루 쳐 가주서 **야~**, 손질했지(여자들이 채칼로 쳐가지고 손질했지).

블러 보오, **양**, 전화치면 되오(블러 봐오, 전화 걸면 되오).

ㄷ) 그러구 **예**, 호구가 틀려서 **예**, 신분증이 있어야 되요<sup>8)</sup>(그리고 주민등록이 틀려서 신분증이 있어야 되요).

우리 **예**, 참 서운하게 **예**, 많았었습니다.(우리는 서운한 것이 참 많았었습니다).

위의 예 (2 ㄱ)에서 밀출친 ‘응’과 종결형어미 ‘-어’, (2 ㄴ)의 밀출친 ‘야~’, ‘양’과 종결어미 ‘-지, -오’ 그리고 (2 ㄷ)의 밀출친 ‘예’와 종결형어미 ‘-요, -습니다’는 각각 ‘응응체, 야야체, 예예체’에 대응된다. 그런데 위의 예들에서 보듯이 한국어의 반말체에 해당하는 ‘-어’와 ‘-지’가 각각 응응체와 야야체 종결형에 사용된다거나, 한국어의 하오체에 해당하는 ‘-오’가 야야체에 사용되고, 한국어의 합쇼체에 해당하는 ‘-습니다’와 두루높임에 쓰이는 ‘-요’가 예예체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용법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같은 경어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화자의 경어 태도에 따라 사용되는 종결어미가 다를 수 있고, 같은 종결어미라고 하더라도 사용되는 경어 등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절에서는 서법에 따라 화자의 경어 태도가 종결어미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 명령법과 청유법의 상대경어법 사용 양상

화자가 청자를 대접하는 정도와 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언어표현이 상대경어법이고, 문장 내용에 대한 화자의 심적 태도가 서법인데 둘 다 문말 어미에 의해 나타나기 때문에 경어법의 등분 문제는 서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앞 절에서 우리는 정암촌의 상대경어법이 크게 세

7) 물론 정암촌에 거주하는 충북출신 화자들은 연변지역에 거주하는 함경도 출신화자들에비하면 수적으로는 소수집단에 해당되고, 연변지역의 함경도출신 화자들은 중국사회 전체를 고려하면 한족들에 비해 수적으로 소수집단이 된다. 그러나 방언의 형태를 이루어왔던 정암촌의 언어 사용 양상을 볼 때 정암촌 자체에서는 충북출신 화자들이 주류집단이 되고 거기에 들어와 사는 함경도출신 화자들은 소수집단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정암촌 주민들의 사회적 연결망에서 찾을 수 있다. 정암촌 주민들은 한국과 수교한 직후인 9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 해도 이민 2세대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와 특별히 큰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이따금 시장을 이용하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을을 거의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는 충북출신 언어집단으로서의 정암촌은 정체성을 거의 상실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8) 중국의 ‘호구 제도’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제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등급, 즉 ‘예예체, 야야체, 응응체’로 나누어질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상대경어법은 언어태도와 서법,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 대화 상황 등에 따라 사용양상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한국어의 서법 가운데 명령법과 청유법을 중심으로 사회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상대경어법의 사용 양상과 등분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경어법의 등분체계는 명령법과 의문법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먼저 말 단계(speech levels)에 따라 문법적으로 각기 달리 표현되는 명령문의 예를 살펴보자.

(예 3)

- 가) ㄱ. 일루 올라 와 앉어라.  
       ㄱ' 여기 줌 앉거라.  
       ㄴ. 일루 올라 와 앉어.  
       ㄷ. 일루 올라 와 앉으시오.  
       ㄹ. 일루 올라 와 앉소.  
       ㅁ. 일루 올라 와 앉읍소.  
       ㅂ. 일루 올라 와 앉아요.  
       ㅅ. 일루 올라 와 앉으세요.  
       ㅇ. 일루 올라 와 앉으십시오.
- 나) ㄱ. 일루 줌 앉지.  
       ㄴ. 일루 올라 와 앉게.
- 다) ㄱ. 아: 줌 울지 않게 달개라.  
       아: 줌 보라.  
       덕환아, 너 나가 개죽 줌 저서라.  
       ㄴ. 밥 줌 더 먹어.  
       ㄷ. 일루 올라 오오.  
       일루 올라 오시오.  
       ㄹ. 이 털옷 당신 입소.  
       ㅁ. 아매, 우리집에 나오십소.

위의 예 (3 가, 나)의 예문들은 각각 지시적 의미(referential meaning)가 동일한 명령문인데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 문장의 종결어미나 어휘 선택을 달리함으로써 경어 등급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여준다. 예 (3)은 청자에게 사용하는 종결어미의 종류에 따라 경어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난 것인데 앞 절에서 언급한 길림성 조선족 방언의 상대경어법 체계인 ‘예예체, 야야체, 응응체’와 대비된다.

예 3 (가 ㄱ)과 (가 ㄴ)은 각각 한국어의 해라체와 반말체에 대응되는 것으로 정암촌에서는 청자가 손자나 아들, 아들 친구, 사위 등 20년 이상 차이가 나는 아랫사람이거나 동무 또는 동생뻘에게 쓰인다. 그렇지만 청자와 화자가 가까운 사이일 때는 두 표현 모두 동무 간에도 사용된다. 그런데 (가 ㄱ')는 (가 ㄱ)에 비해 쓰임의 영역이 제한되어 있다. (가 ㄱ)의 ‘-어라’가 청자의 출신지에 관계없이 아들이나 손자는 물론이고 사위나 동무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데 비해 (가 ㄱ')의 ‘-거라’는 사위나 동무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어라’의 용법이 ‘-거라’의 용법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전자보다 후자가 청자를 조금 더 대접해주는 표현이 된다. 그리고 (가 ㄱ')의 ‘-거라’는 충청도 출신 1세 화자가 충청도 출신 2세나 3세나 정암촌 태생의 함경도 출신 2세나 3세에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어라’의 쓰임과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화자와 청자와의 사이에 두 가지 경어법 사용 조건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힘(power)의 논리가 작용하고, 다른 하나는 유대



(solidarity)의 논리가 작용한다는 것이다. 즉 청자가 손자나 아들 또는 아들 동무여서 화자가 청자보다 힘에서 월등히 우위에 있으면 한국어의 해라체 어미에 해당하는 응응체 어미 ‘-어라, -아라, 거라’를 사용한다. 그런데 청자가 사위나 아들 친구 또는 동생뻘 정도가 되어 힘에서는 화자가 청자보다 우위에 있지만 청자를 어느 정도 대접해 주어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현대 한국어의 반말체 어미에 해당하는 ‘-아, -어’를 써서 대접해 준다. 이와는 달리 청자가 동무일 때는 화자와 청자간에 힘의 관계가 대등하더라도 ‘-아라, -어라’와 ‘-아, -어’가 다 사용된다. 이 때는 힘(power)보다 유대(solidarity)의 논리가 먼저 적용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경어법 사용의 원리를 지적할 수 있다. 즉, 나이 차이가 많아서 힘의 관계가 크고 유대 관계가 약할 때는 ‘-아라, -어라, -거라’ 등 해라체로 대우하고 힘의 관계가 크게 작용하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이이면 한국어의 반말체가 사용된다. 그러나 힘의 관계가 대등하면 ‘하라체’가 사용되는데 이 때는 유대의 논리가 먼저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 ㄷ)과 (가 ㄹ)은 청자의 나이가 어리더라도 유대 정도에 따라 그리고 성별에 따라 어느 정도 대우를 달리하는 예들이다. (가 ㄷ)은 아들의 친구 부인이나 동생뻘의 어른 또는 초면이라도 아들뻘의 어른에게 쓰인다는 점에서 화자보다 청자의 나이가 어리더라도 한국어의 하오체 정도로 예우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가 ㄹ)은 아들의 친구 부인이나 며느리, 사위나 동무, 초면의 동무뻘과 형의 친구 등에게는 ‘하오’로 대우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가 ㄷ)과 (가 ㄹ)에 쓰인 종결어미 ‘-오’와 ‘-소’가 청자를 하대하지도 않고 존대하지도 않는 표현이라는 점에서는 야야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의 언어 사용 맥락에서는 ‘-오’와 ‘-소’의 쓰임에 얼마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오’는 다소 강압적인 명령의 뜻이 있고 ‘-소’는 친근감이 있는 권유의 명령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함경도 방언에 기초한 연변 조선족 방언에서는 ‘-소’보다 ‘-오’가 청자를 더 대접해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이 ‘-오’에 선어말어미 ‘-시-’가 결합되면 더 강한 명령이 된다는 점에서 ‘-시-’가 결합되는 법이 없는 ‘-소’와 대비된다. 이러한 차이는 (다 ㄷ)의 ‘올러 오시오’와 ‘올러 오오’에서 전자보다 후자가 더 강한 유대관계를 가지는 사이이면서 대우해주는 표현이라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다 ㄷ)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화자와 청자간의 심리적인 거리가 멀다고 판단되면 ‘-시-’가 쓰이고 화자와 청자가 친밀한 관계라고 판단되면 ‘-시-’를 쓰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가 ㄷ)이나 (다 ㄷ, ㄹ)에서 보듯이 ‘-시-’는 청자가 손아랫사람이라도 어느 정도 대접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라든가 청자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쓰이기 때문이다.<sup>9)</sup>

또 한 가지 특기할 것은 정암촌 방언의 (가 ㄷ, ㄹ, ㄹ)이나 (다 ㄷ, ㄹ, ㄹ)에 쓰인 ‘-소’나 ‘-오’는 현대 충북방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어미라는 점이다. 이 어미는 정암촌 화자들이 길림성 조선족 방언의 야야체 어미 ‘-오, -소’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 ㄹ, ㄹ)과 (다 ㄹ, ㄹ)은 둘 다 한국어의 ‘하오체’ 정도로 파악되는 예문인데 ‘-소’보다 ‘-(으)소’가 더 공손한 표현으로 파악된다. 초면의 어른, 선생님, 시아버지, 사돈 등 청자와의 심리적 거리가 있으면서 손윗사람이라고 판단되면 ‘-(으)소’를 쓰고, 손아랫사람이라도 아들 친구의 부인, 며느리, 사위, 동무, 동무뻘, 형의 친구 등 대하기가 임의롭지만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청자라고 판단되면 ‘-소’를 쓴다는 점에서 ‘-소’가 ‘-소’보다 더 예우해주는 표현이라고

9) 정암촌에서는 사회적 지위를 ‘급’이라고 표현한다. 따라서 ‘급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

할 수 있다.

(가 ㅂ)과 (가ㅅ, ㅇ)은 다같이 손윗사람에게 쓰는 표현이지만 잘 아는 이웃 사람이거나 선배 또는 시아버지 등과 같이 친밀하고 심리적인 거리가 가깝다고 판단되는 청자에게는 ‘-아/어요’가 쓰이고 초면의 어른이나 선생님, 시아버지 등과 같이 다소 격식과 예의를 차려야 한다고 판단되는 대상에게는 ‘-(으)세요’가 쓰인다.<sup>10)</sup> 이에 비해 각별히 격식을 갖추고 특별히 존대해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으)세요’보다는 ‘-(으)십시오’를 쓴다. 그런데 격식을 갖추어 ‘-(으)십시오’로 대우하던 대상이라도 친밀한 사이가 되거나 사적인 관계가 되면 ‘-아/어요’나 ‘-(으)세요’로 바꾸어 쓴다. 예컨대, 필자가 정암촌을 처음 방문했을 때 제보자가 필자에게 ‘-(으)십시오, -(으)십시오’ 등의 어미를 사용했는데, 며칠간 머물면서 친근해지자 ‘-(으)십시오, -(으)십시오’ 대신 ‘-아/어요, -(으)세요’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 이후 두 번째, 세 번째 방문에서도 처음에는 ‘-(으)십시오, -(으)십시오’를 사용하다가 곧 ‘-아/어요, -(으)세요’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 번째 방문 이후부터는 처음부터 ‘-아/어요, -(으)세요’를 사용하였다. 이는 정암촌 방언에서 종결어미의 사용이 청자와의 유대 정도에 따라 종결어미의 사용에서 얼마간의 차이를 보이는 동시에 예예체 등급이 세분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적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오, -소’나 ‘-(으)ㅂ시다, -(으)십시오’가 함경도 출신 화자들이 즐겨 쓰는 ‘야야체’ 어미인데 비해 ‘-아/어요, -(으)세요’는 전형적인 충청북도 방언의 ‘해요체’ 어미에 해당하는 야야체 어미라는 점이다. 이는 정암촌 방언이 충청도 방언적 요소와 함경도 방언적 요소가 서로 간섭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암촌에서는 이들 두 유형의 어미가 야야체 어미로 혼합되어 쓰이지만 화자와 청자와의 우열 관계나 유대정도, 그리고 청자의 출신지역에 따라 선택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청자가 충청북도 출신이면 ‘-아/어요, -(으)세요’를 선택해서 쓰고 청자가 함경도 출신이면 ‘-오, -소’나 ‘-(으)ㅂ시다, -(으)십시오’를 선택해서 쓴다.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말해준다. 하나는 정암촌 방언의 경어법 사용이 청자의 사회적인 배경에 따라 어미 선택을 달리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암촌 방언의 경어법이 크게 ‘응응체, 야야체, 예예체’로 나뉘어지지만 각각의 등급에 사용되는 어미는 문말 어미의 사용 양상에 따라 다시 세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응응체’는 어미에 따라 다시 ‘-아라, -어라’와 ‘-아, -어’로 나뉘고, ‘야야체는’ 다시 ‘-(으)시오’와 ‘-오’ 그리고 ‘-소’와 ‘-(으)ㅂ소’로 나뉘며, ‘예예체’는 다시 ‘-아/어요, -(으)세요, -(으)십시오’로 하위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가지 부기할 것은 노년층과 장년층 사이에도 어미 사용에서 얼마간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즉 노년층에서는 다소 강압적인 명령의 ‘-(으)시오’를 잘 쓰지 않는다면, 함경도출신 연변 조선족들이 즐겨 사용하는 ‘-(으)ㅂ소’도 청자가 함경도 출신일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쓰이지만 청자가 충청북도 출신이면 이 어미를 쓰지 않는다. 이것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예예체 의문어미 ‘-(으)ㅂ두’가 함경도 출신 화자에게 주로 쓰이고 충청북도 출신 화자에게는 잘 쓰이지 않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동시에 청자의 사회적 배경에 따라 어미 선택을 달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정암촌의 노년층 화자들에게서 관찰되는 경어법 어미의 용법이 장년층 이하의 그것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나 ㄱ)의 예문에서와 같이 명령형 종결어미 ‘-아/어’보다는 명령이나 제안에 쓰이는 어미 ‘-지’를 써서 안면이 없어서 ‘야, 자’하기 어려운 손아랫사람이나

10) 시아버지라도 자주 접하거나 함께 살거나 해서 임의롭게 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아/어요’를 많이 쓰고 분가해서 따로 사는 경우에는 격식을 차려 ‘-(으)세요’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무뺨의 청자를 대접해주기도 한다.<sup>11)</sup> 그리고 충청북도 방언의 ‘하계체’에 해당하는 (나ㄴ)의 ‘-계’는 비슷한 연배의 노인들끼리 서로 대접해줄 때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관찰하기 어렵다. 특히 장년층 화자들은 종결형에 쓰이는 ‘-계’가 노년층 화자들 특유의 명령형 어미라고 인식하고 있다. 노년층 화자들이 각별히 격식을 차려 존경을 표시해야 할 대상에게는 명령형 종결어미 ‘-(으)십시오’를 쓰는데 이 어미도 장년층 이하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이는 충청북도에서 이주한 이민 1세대와 정암촌에서 출생한 이민 2세대 간에 경어법 어미의 사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동시에 젊은층으로 갈수록 충청북도 방언적 요소의 쓰임이 줄어드는 대신 함경도 방언적 요소와 쓰임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암촌 화자들이 정암촌을 둘러싸고 있는 함경도 방언권 화자들과 교류함으로써 정암촌 언어집단이 상대적으로 소수집단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암촌 방언 화자들의 경어법 사용 양상은 ‘밥 먹다’와 관련된 표현에서 더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난다. 다음의 예 (4)를 보자.

(예 4)

- ㄱ. 밥 먹어라.  
    식사 줌 해라.
- ㄴ. 밥 먹어.  
    ㄴ' 식사 줌 해.  
    ㄴ" 식사 줌 해어.
- ㄷ. 밥 줌 먹소.  
    ㄷ' 식사 줌 하시오.
- ㄹ. 진지 드시오.  
    ㄹ' 진지 들소.
- ㅁ. 밥 줌 잡습소.  
    ㅁ. 밥 잡사요.  
        밥 잡수시오.  
        밥 잡수세요.
- ㅅ. 식사 하세요./식사 줌 하시오.
- ㅇ. 식사 줌 하십시오.

위의 (예 4) 역시 지시적 의미가 동일한 ‘밥 먹다’의 명령표현들인데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 문장의 종결어미나 어휘의 선택을 달리함으로써 경어법 사용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 예문은 청자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 즉 화자가 청자보다 힘에서 우위에 있는가 아닌가와 화자와 청자의 유대가 강한가 아닌가, 그리고 발화 상황 등 사회적 조건에 따라 경어 표현이 다양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예에서 보듯이 ‘밥’은 ‘밥, 식사, 진지’ 등의 어휘로 나타나고 ‘먹다’는 ‘먹다, 잡숫다, 들다, 하다’<sup>12)</sup> 등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위의 예 (4)들을 통해서 미묘하기는 하지만 ‘식사’와 ‘진지’가 ‘밥’보다는 더 존경해주는 어휘 표현이라는 점과 ‘밥’과 ‘식사’에 비해 ‘진지’는 힘에서는 상당히 우위에 있고 유대면에서는 아주 가까우면서도 격식을 차려야 하는 청자에게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11) ‘-지’는 흔히 청유법에 쓰이는 어미이지만 (가-ㄱ)의 예에서와 같이 제안 명령에도 쓰인다. 즉 대화 현장의 상황이나 억양 등에 따라 청유법과 명령법에 다 쓰일 수 있는 어미다. ‘안면’을 정암촌 화자들은 ‘면목’이라고 한다. 따라서 ‘안면이 없다’는 말을 정암촌 사람들은 ‘면목이 없다’고 한다.

12) ‘먹다’와 ‘잡숫다’는 ‘밥’과 호응하고 ‘들다’는 ‘진지’와 호응하는 데 비해 ‘하다’는 ‘식사’와 호응한다.

있다.

예 (4 ㄱ)에서 보듯이 전형적인 응응체 명령형 종결어미로 ‘-아/어라’가 쓰인다. ‘식사’와 호응하는 (4 ㄱ)의 ‘해라’는 동무 이하의 청자이면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지만 ‘식사’는 성인의 아들이나 사위와 같이 힘에서는 화자가 청자보다 우위에 있지만 청자를 어느 정도 대접 해주어야 하는 대상에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밥’과 공기(共起)하는 ‘먹어라’와는 차이가 있다. (4 ㄴ)과 (4 ㄴ’) 및 (4 ㄴ”)는 종결어미 ‘-아/어’에 의한 명령문으로 한국어의 ‘해체’ 정도에 해당하는 예문인데 화자와 청자가 서로 잘 아는 사이일 때 쓰인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4 ㄴ’)와 (4 ㄴ”)는 서술어가 ‘하다’이고 서술의 대상이 ‘식사’인데 비해 (4 ㄴ)은 서술어가 ‘먹다’이고 서술 대상이 ‘밥’이라는 차이가 있다. 이는 ‘먹다’나 ‘하다’와 공기하는 목적어에 선택제약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ㄴ)의 ‘밥 먹어’는 (4 ㄱ)의 ‘밥 먹어라’와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청자가 아이일 때는 ‘밥 먹어라’보다 다소 강압적인 느낌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4 ㄴ)의 ‘밥 먹어’는 아들이 청자일 때도 쓸 수 있지만 (4 ㄴ’)나 (4 ㄴ”)의 ‘식사 해(여)’는 아들이 청자일 때는 쓰기 어렵다는 차이가 있다. 이 점에서 청자가 가족이면 ‘밥 먹다’류를 쓰고 청자가 가족이 아니면 ‘식사 하다’류를 쓴다고 할 수 있다.

예문 (4 ㄷ)과 (4 ㄷ’)는 둘 다 ‘야야체’에 해당되는데 (4 ㄷ)은 사위, 며느리 동무 등 힘에서는 우위에 있고 유대가 긴밀하지만 함부로 대하기는 어려운 청자에게 쓰이고, (4 ㄷ’)는 초면의 지하 성인이나 안면이 없는 성인, 촌장 부인, 이성 동무 등 힘에서는 우위에 있지만 유대가 약한 대상에게 쓰인다. 그런데 ‘식사’에는 ‘하다’가 호응하고 ‘밥’에는 ‘먹다’가 호응하여 각각 ‘하시오’와 ‘먹소’로 나타나 ‘밥 먹다’의 명령형에 쓰이는 경어법 형식에서는 (3가)의 ‘앉다’의 명령형에 쓰이는 경어법 형식에서와는 달리 ‘-오’가 ‘-소’보다 더 존중해주는 표현으로 여긴다. 이러한 차이는 경어법이 단순히 종결어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술어와 호응하는 목적어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사’에는 ‘하다’가 호응하고 ‘밥’에는 ‘먹다’가 호응하는 것과 비례하여 어미도 각각 ‘하다’에 호응하는 ‘-오’와 ‘먹다’에 호응하는 ‘-소’로 구별된다. 한편 (4 ㄷ)에서 보듯이 ‘하다’와 호응하는 ‘식사’ 외에 ‘먹다’류 동사 ‘들다’와 호응하는 ‘진지’가 있다. ‘식사 하다’의 명령보다는 ‘진지 들다’의 명령형이 더 존대해주는 표현이 된다. ‘하시오’는 ‘식사’와 함께 초면의 지하 성인이나 안면이 없는 성인, 촌장 부인, 형이나 언니뻘, 이성 동무 등에게 쓰인다. 이에 비해 ‘진지’는 ‘드시오’나 ‘듭소’와 호응하여 시아버지나 시어머니, 아들 선생님, 사돈어른 등 안면이 있는 청자에게 다 쓸 수 있으나 ‘드시오’보다는 ‘듭소’가 더 격식을 차려서 존중해주는 표현이 된다. 이와 비슷한 경어표현이 (4 ㄹ)의 ‘밥 줌 잡솥소’인데 ‘진지 듭소’와 다른 점은 나이 차이가 적은 형이나 언니뻘 등 잘 아는 사이에도 폭넓게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4ㄷ~ㄹ)을 통하여 ‘-시오’보다는 ‘-ㅂ소’가 더 존중해주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화자와 청자간의 사회적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함경도 방언에 기반을 둔 중국 조선족 방언에서는 명령형 종결어미 ‘-소, -(시)오, -ㅂ소’가 다 야야체에 해당하지만,<sup>13)</sup> 정암촌에서는 ‘진지’와 공기하는 ‘들-(다)’에 연결되는 ‘-시오’와 ‘-ㅂ소’ 그리고 ‘밥’과 공기하여 ‘잡수-(다)’에 연결되는 ‘-ㅂ소’는 오히려 예예체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ㅂ소’는 각별히 격식을 차려야 하는 시부모나 사돈어른 등에게 쓰이지만 화자가 중년층 이하의 연령층이면 이 ‘-ㅂ소’보다는 ‘-소’를 주로 쓴다. 이에 비해 나이가 많고 격식을 차리는 화자는 ‘-ㅂ소’를 선호한다. 현재의 충북방언에서는 관찰하기 어려운 ‘-ㅂ소’와

13) 왕한석(1996), 왕한석(1997), 참조.

‘-소’는 함경도 육진 방언과의 접촉으로 함경도 방언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해석된다. 왜냐하면 정암촌이 충북출신 화자들로 이루어진 집단이기는 하지만 주변은 함경도 육진 방언에 기반을 둔 화자들이 주류 집단이라는 점과 1960년대 이후 소수의 함경도 출신 화자들이 정암촌으로 이주한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지 않아보이기 때문이다. 즉 두 방언권 간의 언어적 간섭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4 ㅂ)과 (4 ㅅ)은 충청북도 방언의 요소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다 같이 종결어미 ‘-요’에 의해 표현되는 ‘예예체’에 해당되지만 (4 ㅂ)은 ‘밥’과 호응하는 ‘잡수다’가 쓰인 예들이고 (4 ㅅ)은 ‘식사’와 호응하는 ‘하다’가 쓰인 예들이다. 이들 예에서도 한국어 경어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밥’과 ‘식사’에 의해 경어등급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4 ㅂ)과 (4 ㅅ)의 ‘밥 잡수시오’와 ‘식사 하시오’의 ‘-시오’는 ‘먹어’와 ‘가’에 ‘-요’가 통합된 ‘먹어요’나 ‘가요’에 유추된 ‘-시오’의 변이형이 굳어진 형태로 해석된다. ‘-시오’는 한국어의 두루 높임에 해당하는 ‘-요’와 중국 연변 조선족들이 사용하는 야야체 어미 ‘-시오’가 융합된 형태로 파악된다. 한편, ‘밥 잡수세요’와 ‘식사 하세요’는 충청북도 방언의 두루 높임에 해당하는 ‘해요체’ 경어 형식의 잔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정암촌 방언이 충청북도 방언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함경도 방언의 영향을 받아 함경도 방언이 덧씌워진 결과 두 방언이 혼합되면서 중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게 한다.

(4 ㅇ)은 가장 격식을 갖추는 경어형식인데 어미 ‘-십시오’로 표현된다. 주로 회의와 같은 공식적인 자리나 관공서의 장 또는 급이 높은 사람, 처음 만나는 외국인 등 예의를 깎듯이 차리고 격식을 갖추어야 할 때 쓰인다. 급이 높거나 예의를 깎듯이 차려야 할 대상이거나 외국인이라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생겨 가까워지면 화자와의 관계에 따라 ‘-요’나 ‘-시오’, ‘-소’ 등으로 준대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정암촌 내부의 화자들끼리는 (4 ㅇ)과 같은 경어 형식을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다음의 예 (5)는 현대 충북방언과 비교해볼 때 정암촌 방언이 보여주는 특징적인 명령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예 5)

- ㄱ. 아, 식사 줘 하지.
- ㄴ. 밥 잡수.
- ㄷ. 밥 줘 먹시오.  
    밥 줘 먹소.
- ㄹ. 밥 드세요.
- ㅁ. 진지 드세요.
- ㅂ. 밥 먹게.
- ㅅ. 올 때 덕재 아버지 댄디(링거) 하나 가주 오꾸마.

(5 ㄱ)의 ‘-지’는 화자와 청자가 동무간이거나 화자의 동생뻘 정도의 청자에게 쓰이는 권유 형식의 응응체 명령형으로 주로 장년층 이하에서 관찰된다. 동무간이면 ‘식사 줘 해’나 ‘밥 줘 먹어’ 정도로 쓰이는 것이지만 (5 ㄱ)의 경우는 ‘밥을 함께 먹었으면 좋으련만’ 정도의 의미나 ‘식사 줘 했으면’ 하는 정도의 원망(願望)을 표시하는 명령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보면 명령이라기보다는 청자가 안 먹을 것을 예측하면서 인사치레로 권유해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5 ㄴ, ㄷ)은 경어등급으로 보면 야야체에 해당된다. 그런데 (5 ㄴ)의 ‘잡수’는 ‘잡수+우’로 분석되는데 잘 아는 사이의 형이나 언니뻘 또는 안면이 없는 형뻘의 청자에게 쓰이는데 주로 장년층 화자들이 사용한다. 어미 ‘-우’는 선행하는 어간의 말모음과

갈기 때문에 어간 마음에 축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어미는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여성 성인 화자가 어머니나 언니에게 ‘언니두 갈라우?’ ‘밥좀 먹을라우?’의 ‘-우’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인데 정암촌에서는 남자끼리도 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5 ㄷ)의 ‘-기오’는 강한 권유형식의 청유형 어미로 동무나 잘 아는 형뻘의 청자에게 쓰인다. 이 어미는 본래 정암촌에서는 쓰이지 않던 것인데 정암촌 화자들이 함경도 출신 화자들과 교류함으로써 그들의 영향을 받은 결과가 반영되어 함경도 방언 어미인 ‘-기오’를 차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어미는 주로 장년층 이하의 화자들이 쓰지만 노년층에서도 이따금씩 관찰된다. 노년층에서 이 어미가 쓰인다면 주로 여성 화자들이다. 이는 여성 화자들이 남성화자들에 비해 청자를 더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정암촌에서는 주류 집단인 충청북도 출신 화자들이 소수집단인 함경도 출신 화자들과 대화할 때 청자를 배려하여 어미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현상은 남성화자들에 비해 여성화자들에게서 두드러진다. 주류집단이 소수집단을 배려하는 태도는 노년층의 자제들인 장년층에서 더 일반화되어 있다. 이는 장년층 화자들이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기에 함경도 방언권 화자들과 교류함으로써 그들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해석된다.<sup>14)</sup> 정암촌에서는 충청북도 출신이 주류집단이고 함경도 출신이 소수집단이지만 정암촌 밖의 사회에서는 정암촌 출신이 소수집단이고 함경도 출신이 주류집단인 점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와는 달리 예 (5 ㄷ)과 (5 ㄹ)의 ‘-요’는 정암촌의 장년층 이상 화자들에게서 주로 관찰되는 경어형식인데 충청북도 방언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함경도 방언에 기반을 둔 연변 조선족들은 이 경우 ‘밥 드시오’나 ‘밥 좀 먹소’ 또는 ‘진지 드시오’나 ‘진지 돕소’ 등 야야체를 사용하는데 비해 충청북도 방언에서는 예 (5 ㄷ, 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결어미에 ‘-요’가 통합된 ‘해요체’ 형식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암촌에서는 같은 ‘야야체’라도 ‘밥 좀 드시오’나 ‘밥 좀 먹소’ 보다는 ‘진지 드시오’나 ‘진지 돕소’가 더 존중해주는 표현이고 ‘진지 돕소’보다는 ‘진지 잡습소’가 더 존중해주는 표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야야체’와 ‘에에체’ 영역을 넘나드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기할 것은 (5 ㄴ)의 ‘-게’에 대한 화자들의 인식이다. 장년층 화자들은 한국어 경어법의 ‘하계체’ 형식인 ‘밥 먹게’가 서로 엇비슷한 연배의 노년층 화자들끼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정암촌의 노년층 화자들에게서도 거의 쓰이지 않는다. 이는 노년층의 인식 속에는 ‘-게’가 자리잡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사라져가는 어미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충북 방언형인 ‘-게’ 대신 함경도 방언형인 ‘밥 먹소’나 ‘진지 돕소’에서와 같이 야야체 어미 ‘-소’가 쓰인다.

또 한 가지 특기할 것은 (5 ㄸ)의 ‘-꾸마’다. ‘-꾸마’는 ‘-(으)ㄹ두’로 질문하는 의문문에 대답하는 형식의 평서문에 쓰이는 어미인데 정암촌에서는 예 (5)에서 보듯이 명령문에도 쓰이는 특징을 보인다. 이 ‘-꾸마’도 정암촌에서는 의문형 어미 ‘-(으)ㄹ두’를 쓸 대상, 즉 함경도 출신의 손윗사람이나 여성 청자에게 쓴다는 제약이 있다. 이 때의 화자도 여성이라는 점이 또 하나의 제약이 있는데 이러한 제약은 주류집단인 정암촌 충북출신 화자들이 소수집단인 함경도 출신 화자들을 배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방을 더 배려하는 한다는 것과 여성이 소수집단의 방언을 더 자연스럽게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4) 정암촌의 장년층인 이덕재(44세), 이이재(40세), 최봉철(41세)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초등학교는 마을에 있는 학교에 다녔고 중학교는 마을에서 십 리 정도 떨어진 곳으로 다녔는데 또래들끼리 어려울려 다녔기 때문에 이웃하는 함경도 말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으나 고등학교(고중학교)는 이십 리 정도 떨어진 곳으로 다녔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정암촌 출신 학생 수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히 함경도 출신의 학생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 이 때 함경도 방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다. 따라서 청자가 충청북도 출신이라면 이 어미가 쓰일 자리에서 ‘-(으)꾸마’ 대신 ‘-아/어 요’가 쓰인다.

정암촌 방언에서 관찰되는 상대경어법 사용의 혼합 양상은 명령법에서만 아니라 청유법에서도 관찰된다. 청유법은 청유형 어미에 의해 문장을 끝맺는 서법의 하나로서 화자가 청자에게 함께할 것을 요구하는 특징을 갖는다. 다음의 (예 6)을 통하여 청유문에 나타나는 정암촌 방언의 경어법 혼합 양상을 살펴보자.

(예 6)

- ㄱ 나하구 같이 가자.
- ㄴ 같이 가지.
- ㄴ' 같이 가.  
같이 먹어.
- ㄷ 같이 가세.
- ㄹ 내가 같이 가시오.  
나하구 같이 가시오.  
김서기! 나줍 보시오.
- ㄹ' 나하구 같이 가시오.
- ㄹ 내가 같이 가집소.
- ㄹ' 내하구 같이 갑:소(가압소).
- ㅁ 나하구 같이 가세요.
- ㅂ 내가 같이 가시오.
- ㅂ' 나하구 같이 가시오.
- ㅇ 내하구 같이 갑시다.  
내가 같이 갑시다.
- ㅇ' 내하구 같이 갑시다.
- ㅈ 같이 가집시다.

위 예 (6)의 예문들은 청유형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화자가 청자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형식의 청유문이다. 정암촌의 청유문에는 충청북도 방언 요소와 함경도 방언 요소가 혼합되어 사용됨으로써 위의 예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띤다.

(6 ㄱ)의 청유형 어미 ‘-자’는 아이, 아들, 며느리, 동무 등에게 쓰는 전형적인 응응체(야자체) 어미다. 청자가 화자보다 아랫사람일 때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청자와 화자가 친밀한 동무 간에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쓰임의 폭이 넓다.

(6 ㄴ)의 ‘-지’와 (6 ㄴ')의 ‘-아/어’는 야야체 청유형 어미로 파악된다. (6 ㄴ)은 충북 방언의 반말체 정도에 해당되는데 어미 ‘-지’가 쓰여 함께 갈 것을 요청하는 청유문으로 쓰인 것이다. 이와 비슷한 어미로 (6 ㄴ')의 ‘-아/어’가 있다. 이 어미는 명령문에도 쓰이고 의문문에도 쓰이는데 문말 억양이 올라가면 의문문이 되고 문말 억양이 내려가면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된다. 문말 억양이 내려가고 짧으면 명령문이 되고 문말 억양이 내려가고 길면 청유문이 된다. 주어가 2인칭이고 문말 억양이 올라가면 관정의문이 되는데 비해 화자가 청자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의미를 가진 ‘같이’가 쓰이고 문말 억양이 내려가면 청유문이 된다는 점에서 다르다.<sup>15)</sup> ‘-지’는 2인칭 주어와 함께 청자가 어떤 행동을 해 줄 것을 권

15) ‘-아/어’가 다음의 예에서와 같이 2인칭 주어와 함께 쓰이고 문말 억양이 내려가면 명령문으로도 쓰인다. 그러나 명령문으로 쓰이면 문말 어미가 짧게 발음된다.

예) 니가 가.  
천천히 가. 넘어질라.

유하는 문장에 쓰이고, ‘-아/어’는 2인칭 주어와 함께 청자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명령문에 쓰인다는 점에서 청유문에 쓰이는 ‘-지, -아/어’는 완곡한 명령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 외에 충북방언의 하계체 정도에 해당하는 청유형 어미로 (6 ㄷ)의 ‘-세’가 있다. 이 어미는 청자를 ‘자네’로 지칭할 만한 대상에게 쓰이는 것인데 위의 예에서는 청유문의 특성상 2인칭 대명사가 안 나타난 것이다. 정암촌 방언에서는 ‘자네’가 거의 쓰이지 않으며 청유형 어미 ‘-세’도 비교적 나이가 든 어른들에게서만 이따금 관찰되고 젊은 층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점차 사라져 가는 어미라고 할 수 있다. 정암촌 화자들은 이 어미도 야야체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암촌 방언에서는 청자가 화자와 동급이거나 동무 간, 또는 형이나 언니뻘이면 일반적으로 (6 ㄷ)의 ‘가시오’와 같은 ‘야야체’ 청유문을 쓴다. 그런데 청자가 동무라도 예우해 주어야 할 상황이거나 그 이상 사람이면 ‘-김소’를 쓰고, 청자의 나이가 어리더라도 급이 있어 예우해 주어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기오’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점에서 ‘-김소’가 ‘-기오’보다는 더 공손한 표현이 된다.

그런데 ‘-소’와 ‘-오’의 사용에는 음운론적인 제약이 있어 ‘-소’는 선행음절의 말음이 자음으로 끝날 때 쓰이고, ‘-오’는 선행음절의 말음이 모음으로 끝날 때 쓰이는 것으로 관찰된다. ‘-김소’와 ‘-기오’는 여기에 동행 명령을 뜻하는 형태소 ‘-기-’가 결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선행어간 말음이 자음으로 끝나면 ‘-김소’가 쓰이지 않고 ‘-기오’나 ‘-기시오’ 또는 ‘-기요’나 ‘-기시요’가 쓰이는데 비해 선행어간의 말음이 모음으로 끝나면 ‘-김소’와 ‘-기오’가 다 쓰인다는 점에서 음운론적인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떡기오’, ‘잡기오’, ‘가기오’는 쓰이지만 ‘떡김소’, ‘잡김소’는 쓰이지 않는다.<sup>16)</sup> ‘-기시오’와 ‘-기시요’는 ‘-기오’와 ‘-기요’에 각각 존칭의 선어말어미 ‘-시-’가 결합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기요’와 ‘-기시요’는 명령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길림성 조선족 방언의 야야체 어미 ‘-기오’와 ‘-기시오’에 충북 방언의 두루높임에 쓰이는 종결형 어미 ‘-요’가 통합되어 쓰이는 전형적인 혼합양상을 보이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청유형이 동행 명령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일종의 우회적인 명령 표현이 된다. 이렇게 명령형이 청유형으로 전용되어 쓰이는 예가 (6 ㄹ)의 ‘-ㅂ소’다. ‘-ㅂ소’는 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함경도 방언에 기초한 길림성 방언에서 차용한 야야체 명령형 어미와 기원을 같이 하는 것인데 이 어미가 ‘서로 더불어 행동할 것’을 의미하는 ‘-하구 같이’나 ‘같이’ 또는 ‘-도’와 함께 쓰여 ‘선생님’과 같이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청자에게 쓰이면 명령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청유문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6 ㄷ)과 (6 ㄹ)에서 찾을 수 있다. (6 ㄷ)의 ‘-기오’는 ‘-기-’와 ‘-오’로 분석할 수 있고, (6 ㄹ)의 ‘-김소’는 ‘-기-’와 ‘-ㅂ소’로 분석할 수 있다. ‘-기-’는 동행 명령의 의미를 가지는 형태소라고 할 수 있고 ‘-ㅂ소’와 ‘-오’는 각각 야야체 명령형 종결어미 ‘-ㅂ소’와 ‘-오’에 기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ㅂ소’는 동무나 형, 언니뻘의 친근한 순위 사람에게 쓰이고, ‘-오’는 동무나 사위, 지위나 급이 있는 손아래 사람에게 쓰인다는 점에서 한국어의 하오체와 비슷하지만 형이나 언니, 형뻘이나 언니뻘의 안면 있는 사람에게도 쓰인다는 점에서 한국어의 하오체와 차이가 있다.

(6 ㄹ)도 명령형 어미가 청유형으로 전용되어 쓰이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서로 더불어 행

16) 이러한 차이가 어휘에 따른 제약인지 ‘-기-’나 ‘-오’, ‘-소’ 및 ‘-ㅂ소’, ‘-김소’와 관련된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좀더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논의는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없다.



동할 것'을 의미하는 '-하구 같이'나 '같이'와 공기하는 특징을 보이는 '-세요'는 본래 예예체 명령형에 쓰이던 어미인데 명령의 의미가 약화되면서 청유형으로 전용되어 쓰이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어미는 (6 ㅅ~ㅈ)의 '-기요, -ㅂ시다, -깁시다'와 함께 소위 '예예체' 어미에 해당하는 것인데 청자를 존대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될 때 사용된다. (6 ㅂ)의 '-세요'와 (6 ㅅ)의 '-기요'는 두루 높이는 형태의 청유형 어미인데 주로 동네 사람 등 안면이 있는 청자에게 쓰인다는 점에서 (6 ㅅ)의 '-ㅂ시다'나 (6 ㅈ)의 '-깁시다'보다 덜 격식적이다. '-기요'는 형태적으로 보면 함경도 방언의 청유형 선어말어미 '-기-'와 두루높임의 어말어미 '-요'가 혼합(mixing)된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함경도 방언형과 충청북도 방언형이 혼합된 정암촌 특유의 청유형 종결어미라고 할 수 있다. (6 ㅅ)의 '-기시요'도 충청북도 방언형과 함경도 방언형이 융합된 '-기요'에 존칭의 선어말어미 '-시-'가 결합된 청유형 종결형으로 아버지와 아버지뻘, 또는 할아버지와 할아버지뻘, 아주머니와 아주머니뻘, 할머니와 할머니뻘 등에게 쓰인다는 점에서 '-기요'보다는 좀더 공손한 표현이 된다. 결국 '-기요'나 '-기시요'는 함경도 방언의 청유형 선어말어미 '-기-'와 충청도 방언의 해요체 종결어미 '-요'가 혼합된 정암촌 특유의 청유형 종결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정암촌 내의 주류집단인 충청북도 출신 화자들과 함경북도 출신 화자들이 공존하고, 정암촌 화자들이 정암촌을 둘러싼 주류집단인 함경도 출신 화자들과의 언어적 교류에 의한 언어적 간섭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6 ㅅ)의 '-ㅂ시다'는 선생님이나 초면의 급이 있는 청자, 초면의 아버지뻘 등 격식을 갖추어야 할 대상이나 청자의 나이가 화자보다 어리더라도 안면이 없는 공공기관의 직원 등일 때 이 어미가 쓰인다는 점에서 아버지뻘이나 큰형뻘의 안면이 있는 청자에게 쓰이는 '-깁시다'보다 더 격식적인 형태로 파악된다. 한국어에서는 선생님이나 아버지뻘의 청자에게 이 '-ㅂ시다'를 사용하면 버릇없는 표현이 되지만 정암촌에서는 격식을 갖추어 예우해주는 경어 등급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라 할 만하다.<sup>17)</sup> (6 ㅅ)의 '-ㅂ시다'는 '-ㅂ시다'에 존칭의 선어말어미 '-시-'가 삽입된 형태인데 초면의 형뻘이나 아버지뻘, 할아버지나 할머니뻘 등에게 쓰이는 완곡한 청유 표현으로 인식된다. 정암촌에서 관찰되는 청유형 어미 '-깁시다'는 충북 방언의 청유형 어미 '-ㅂ시다'에 함경도 방언의 청유형 선어말어미 '-기-'가 중복되어 혼합된 형태로 분석된다.

명령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청유문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어미가 쓰이는 것은 정암촌 방언이 충북 방언의 요소와 함경도 방언의 요소가 혼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IV.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1938년과 1940년에 충청북도에서 이주해간 충북방언 화자들이 개척하여 이룩한 중국 길림성 도문시의 충청도 마을인 정암촌 방언에서 사용되는 상대경어법을 명령법과 청유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명령법 종결어미와 청유법 종결어미의 형태와 사용상의 특징들을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 및 사회적인 맥락과 관련지어 이해하려 하였다. 정암촌 방언의 상대경어법은 정암촌 언어집단의 구성원들과 정암촌의 사회·문화적인 맥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정암촌 방언의 상대경어법은 정암촌의 주

17) 여기에서 특징적이라는 것은 한국어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조선족들이 쓰는 한국어에서 그렇다는 뜻은 아니다. '-ㅂ시다'가 한국어에서는 하계체 정도에 해당되지만 정암촌 방언에서는 가장 존대해주는 예예체에 해당하는 어미라는 점에서 한국어와 차이가 있다.

류 집단인 충청북도 출신 화자들 사이에 소수 집단인 함경북도 출신 화자가 이주해 온 것과 정암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류집단인 정암촌을 둘러싼 함경도 방언권 언어집단과의 언어 접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정암촌 방언의 상대경어법은 화자와 청자와의 지위 관계, 화자와 청자의 출신지, 청자의 직업, 화자와 청자와의 유대관계 등 상대경어법이 사용되는 범위나 조건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어법이 화자와 청자가 가족관계인지의 여부와 유대의 정도, 화자와 청자간의 상대적인 위계 등에 따라 경어표현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에 대신한다.

정암촌 방언의 명령문에 쓰이는 상대경어법은 크게 예예체, 야야체, 응응체로 인식되지만 이들은 다시 각 등급을 교집합으로 하는 하위 등급으로 세분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아/어)라, -거라’ 등은 응응체 어미로 쓰이지만 ‘-어, -여, -게’ 등은 야야체와 응응체에 다 쓰일 수 있고 그 가운데 ‘-게’는 충청북도 방언형인데 비해 ‘-오, -소, -ㅂ소’는 함경도 방언형 어미로 야야체와 예예체에 다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으)십시오’와 ‘-(으)세요, -(아/어)요, -(아/어)유, -(으)시오, -(으)시요, -(으)꾸마, -(으)꼬마’ 등은 다같이 예예체에 쓰이지만 ‘-(으)십시오’는 격식적이고 공식적인 상황에서 쓰여 가장 격식적인 경어표현인데 비해 나머지는 친밀하고 비격식적인 상황에서 쓰이기 때문이다. 이들 어미 가운데 ‘-(으)시오, -(으)꾸마, -(으)꼬마’는 함경도 방언형이고 나머지는 충청북도 방언형이라는 점에서 두 방언형이 혼합되어 사용되는 특징적인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정암촌 방언의 청유문에 사용되는 종결어미도 노년층과 장년층 이하 사이에 얼마간의 차이를 보이고 격식적인 표현과 비격식적인 표현에서도 얼마간의 차이를 보인다. ‘-자, -지, -아/어’ 등은 충청북도 방언형과 함경도 방언형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종결어미인데 비해 예예체의 ‘-세요’나 ‘-ㅂ시다, -십시오’와 노년층에서만 관찰되는 ‘-세’는 충청북도 방언형이라고 할 수 있고, 청유형에만 쓰이는 형태소 ‘-기-’를 가진 ‘-기오, -기시오, -깁소, -깁시다’와 ‘-ㅂ소’ 등은 함경도 방언형이다. 그런데 함경도 방언형과 충청북도 방언형이 융합된 ‘-기요, -기시요’는 정암촌 방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청유문에서도 명령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충북방언의 요소와 함께 함경도 방언의 요소가 혼합되어 쓰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사실들은 정암촌 방언에 충청도 방언형과 함경도 방언형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충청북도 출신 화자들은 함경도 방언형을 차용해서 쓰고 함경도 출신 화자들은 충청북도 방언형을 차용해서 씀으로써 정암촌에서는 충청도 방언형과 함경도 방언형이 공존하게 된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정암촌 방언의 경어법에 대한 등급체계와 형태소들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암촌과 같이 방언권이 다른 화자들이 혼합된 언어집단의 방언사용에 대한 연구는 나이, 세대, 출신지 등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임을 말해준다. 특히 상대경어법의 쓰임을 인칭대명사나 호칭과 함께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인칭대명사와 호칭은 화자가 그 인물의 신분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여러 형태로 분화되어 나타나고 이 분화는 경어법의 분화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sup>18)</sup> 인칭대명사나 호칭과 관련된 경어법의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 참고 문헌

18) 인칭대명사와 호칭을 고려하여 경어법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과제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 강규선 (1980). “존경법에 관한 고찰-연구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성대문학 21, 63-100. 성균관대학교 국문학회.
- 고영근 (1974). “현대국어의 존비법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 10(2), 66-91. 서울대 어학연구소.
- 김정수 (1996). “높임법의 등분.” 말 21, 1-14.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김희숙 (2000). “청자대우 ‘해요체’ 사용과 사회적 집단과 상관성.” 사회언어학 8(1), 167-204. 한국사회언어학회.
- 노마 히데키 (1996). “현대 한국어의 대우법 체계.” 말 21, 15-54.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류구상 (1993). “천안 지방어의 경어법-주체·상대 경어법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논문집 23, 1-25. 한남대학교.
- 박경래 (1999). “청원방언의 경어법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개신어문연구 16, 3-64. 개신어문학회.
- 박경래 (2002). “중국 조선족들의 모국어 사용 실태.” 사회언어학 10(1), 113-146. 한국사회언어학회.
- 박경래 (2002). “중국 조선족들의 언어 태도.” 사회언어학 10(2), 59-85. 한국사회언어학회.
- 박경래 (2003). “중국 연변 정암촌 방언의 상대경어법.” 이중언어학 23, 44-65. 이중언어학회.
- 성기철 (1985). 현대국어대우법 연구. 서울: 개문사.
- 성기철 (1987). “현대국어 존대법.” 국어생활 9(여름), 102-112. 국어연구소.
- 성기철 (1990). “공손법.”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서울: 동아출판사.
- 성기철 (1996). “현대 한국어 대우법의 특성.” 말 21, 87-106.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왕한석 (1996). “언어생활.” 국립민속박물관(편). 중국 길림성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149-189.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 왕한석 (1997). “언어생활.” 국립민속박물관(편). 중국 요녕성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185-211.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 유송영 (1994). “국어 청자 대우법에서의 힘(power)과 유대(solidarity) I -특히 청자 대우를 중심으로-.” 국어학 24, 291-318. 국어학회.
- 유송영 (1996). 국어 청자 대우 어미의 교체 사용. switching과 청자 대우법 체계-힘(power)과 유대(solidarity)의 정도성에 의한 담화 분석적 접근-. 고려대학교 국문과 박사학위논문. 서울.
- 이맹성 (1975). “한국어 종결어미와 대인관계 요소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인문과학 35·36, 263-288. 서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이익섭 (1974). “국어 경어법의 체계화 문제.” 국어학 2, 39-64. 국어학회.
- 이익섭 (1974). “영동방언의 경어법 연구.” 교양과정부 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6, 47-67. 서울대학교.
- 이익섭 (1994). 사회언어학. 서울: 민음사.
- 이정복 (1999). “국어 경어법의 전략적 용법에 대하여.” 어학연구 35(1), 91-12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이정복 (1999). “상대경어법.” 서태룡 외 (편). 이익섭 선생 회갑기념논총 문법 연구와 자료, 329-357. 서울: 태학사.
- 이정복 (2000). “대학생들의 제3자 경어법 사용에 나타난 참여자 효과.” 한국문화 18, 3-71, 서울: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 이정복 (2001). 국어 경어법 사용의 전략적 특성-국어학총서 40. 서울: 태학사.
- 임홍빈 (1990). “존경법.”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편),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388-400. 서울: 동아출판사.
- 최현배 (1937), 우리말본. 서울: 정음사.
- 한국언어학회 (1976). “국어의 존대법(공동토론문).” 언어 1(2), 190-200. 한국언어학회.
- 한상복·권태환 (1993). 중국연변 조선족의 사회구조.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허 용 (1961). “15세기 국어의 ‘존대법’과 그 변천.” 한글 128, 5-62. 한글학회.
- Fasold, R. (1990). *The Sociolinguistics of Language*. Oxford: Blackwell. 황적륜 외 (역). 1994. 사회언어학. 서울: 한신문화사.
- Gumperz, J. J. (1971). Dialect differences and social stratification in a north Indian village. In J. J.

Gumperz(ed.). *Language in Social Group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Holmes, J. (1992). *An Introduction to Sociolinguistics*. London: Longman.  
Labov, W. (1966). *The Social Stratification of English in New York City*. Washington, D.C.: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박경래  
krpark123@hanmail.net

접수: 2005. 4. 21  
수정본 접수: 2005. 5. 18  
게재 결정: 2005. 6. 2

K C I